



② 국내 유무선 통합서비스 현황

# 유무선 전화기부터 모바일 오피스까지

## KT·LG텔레콤 '적극대응' ...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도 동참

유선과 무선 통신환경이 발달되면서 두 네트워크간 연동 또는 통합시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T의 '원폰' 및 '안폰', 그리고 LG텔레콤의 '기분존' 이 대표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이다. 이 외에도 '블랙베리' 등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으며,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한 SK텔레콤의 '포켓원' 도 유무선 통합서비스 계열이다.

글 | 심우성기자(아이티타임스)

### 유선전화와 휴대폰을 하나로

KT는 유선전화와 휴대폰을 하나로 통합한 '원폰' 및 '안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두 서비스 모두 집에서는 유선전화 요금으로, 밖에서는 휴대폰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원폰은 쉽게 말해 PCS폰 개념이다. 밖에서는 종전처럼 휴대전화로 사용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AP를 통한 블루투스 자동 설정으로 집전화 즉, 집무선전화로 변경

된다. 따라서 밖에서처럼 휴대폰으로 걸거나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안폰은 무선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단순한 무선전화기가 아니라 휴대폰 기능이 탑재 되어 있는 무선전화기로, 문자메시지·게임·보이스포탈·발신자표시·전화번호저장·64폴리 벨소리 등을 제공한다. 특히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보다 50%나 저렴한 건당 15원에 불과하다.



LG텔레콤은 원폰과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요금은 저렴한 '기본존(Zone)' 서비스를 지난 5월 출시했다. '기본존'은 이동전화 대비 저렴한 유선전화 요금과 휴대폰의 강점인 편리함·이동성을 최대화한 서비스로, 지금까지 유선통신 사업자의 독보적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선전화 시장까지도 무선통신 사업자가 공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담배갑 보다 작은 플러그 형태의 소형기기(기본존 알리미)를 집 또는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면 기본존 알리미가 설치된 반경 30m(약 48평)이내의 거리에선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유선전화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KT '원폰' 서비스의 경우 휴대폰과 함께 유선전화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유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입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본존'은 유선전화가 없더라도 휴대폰 하나로 유선과 무선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존(Zone) 내에서는 최대 7명까지 동시 통화가 가능하다.

특히 기본존의 경우 기본존 알리미가 설치된 곳에서도 LG텔레콤의 무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존(Zone)에

데이콤은 국내 최초로 무선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와이파이(Wi-Fi)폰' 서비스를 6월부터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무선랜 환경을 기반으로 이동형 단말기인 Wi-Fi폰을 통해 구내·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을 제공한다. 기업내 구축돼 있는 무선랜 스위치와 AP(Access Point)를 이용, 무선으로 VoIP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진입 또는 이탈하더라도 끊김 없는 통화를 할 수 있다. '원폰'은 또한 AP가 설치된 지역을 벗어날 때 핸드오프(Hand-off)가 되지 않아 휴대폰으로 유선전화 요금으로 통화를 하다가 존(Zone) 밖으로 나오면 전화가 끊긴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기본존은 이를 해결했다.

#### 데이콤·하나로 '우리도 있다'

유무선통합 서비스 제공에 데이콤과 하나로통신도 동참했다.

데이콤은 국내 최초로 무선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와이파이(Wi-Fi)폰' 서비스를 6월부터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무선랜 환경을 기반으로 이동형 단말기인 Wi-Fi폰을 통해 구내·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을 제공한다. 기업내 구축돼 있는 무선랜 스위치와 AP(Access Point)를 이용, 무선으로 VoIP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현재 대응 단말기는 아크로웨이브시스템과 유니테이타커뮤니케이션이 공급한 2기종이며, 연내 이를 5개 기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데이콤에 따르면, 지금까지 070 등 유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있었지만, 이동형 무선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전화(VoIP)서비스를 상용화 하기는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우선 기업고객 대상으로 일반 국내통화(시내외 동일)는 3분당 45원, 이동전화로의 통화는 10초당 14원에 제공한다.

아울러 일반 시내전화에서의 무선인터넷전화(Wi-Fi)로의 전환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070 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했지만, 데이콤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내번호 이동시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전화(VoIP)로 전환이 가능하다.

데이콤은 Wi-Fi폰을 통해 음성뿐 아니라 향후 영상 멀티미디어까지도 송수신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집전화를 통해 휴대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춘 2.4GHz 무선디지털전화 '하나폰 MA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폰 MATE'는 2.4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디지털전화 서비스로, 휴대폰처럼 1.5" 컬러 LCD를 채택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CID(발신자번호표시), 전화번호부 기능, 64화음 벨소리, 전자계산기 기능뿐만 아니라 새롭게 문자서비스(SMS)와 무선 단말 간 내부 무료통화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하나로텔레콤은 현재 서울시 강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11월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번 없이 106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나로텔레콤 마케팅본부장 마크 피츠포드 부사장은 "2.4GHz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통화품질은 물론, 집에서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무선디지털 전화서비스"라며,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청이 힘들다는 점과 가정에서 최대 4대까지의 무선 단말 간 무료 통화기능을 이용 통신료를 절감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경제성과 편리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오피스 시대 '활짝'**

유선전화와 휴대폰의 만남 외에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오피스 환경 구현이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시대도 활짝 열리고 있다.

특히 이메일을 휴대단말기와 연동시키는 서비스가 인기. 지난 5월 캐나다의 림(RIM)사와 제휴해 '블랙베리' 서비스를 선보인 KT파워텔이 원조다. 이미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500만 가입자가 사용 중인 블랙베리 서비스는 국내에서 KT파워텔이 TRS 서비스와 모바일 이



메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자체 800MHz의 TRS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와위텔과 달리,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한 서비스도 출시됐다.

호스트웨이IDC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활용한 대표적인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프리미엄 모바일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한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기능을 PC에서와 똑같이 스마트폰(삼성전자 SCH-100)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뿐 아니라 포켓PC, PDA폰이나 윈도 모바일2003 SE 이상이 지원되는 단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 동안 기업에서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모바일 오피스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휴대폰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극복해 본격적인 '모바일 오피스' 시대를 열 것으로 호스트웨이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사무실에서는 PC로, 외부에서는 휴대폰이나 PDA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합 업무지원 솔루션 '포켓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켓원' 서비스는 많은 고객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 전문직이나 벤처기업 종사자들이 사무실과 외부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서비스.

사무실에서는 '포켓원' 웹사이트 (www.pocketone.co.kr)를 통해 PC로 하던 업무를 외근이나 출장지에서는 휴대폰이나 PDA를 통해 사무실에서와 동일한 환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포켓원'은 ▲고객관리 ▲그룹웨어 ▲간편장부 등의 솔루션이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개인 자영업자, 소기업 별로 1인당 최저 월 5000원에서 1만8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가 외근이 잦은 회사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휴대폰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휴대폰 속으로도 들어왔다. 국내 대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옥션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옥션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

'옥션모바일'은 SK텔레콤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옥션의 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경매, 물품 구매 및 판매를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SK텔레콤의 무선 인터넷 통신망인 네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옥션모바일'은 경매·즉시구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통신의 특성을 살려 경매진행상황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옥션모바일 내에서는 등록 및 낙찰수수료가 무료(신용카드 수수료 제외)이므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기존 인터넷 옥션 회원은 관심물품보기 및 입찰/재입찰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초특가·노마진 물품 등 특가 상품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최저가 구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옥션 측은 이번 옥션모바일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양사간 업무 협력과 향후 신 사업 등의 공동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모바일과 인터넷 상거래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

